

# 전북 차량서 탑승자 구조... “당연한 일 했을 뿐”

●노인범 목포교도소 교위

## 휴가 중 서해안고속도로 주행하다 트럭-SUV 사고 목격 갓길에 차량 세우고 일가족 3명에 도움...2차 사고 예방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도 전북된 차량을 그냥 지나치진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알려지게 돼서 부끄럽습니다.” 목포교도소 교도관 노인범 교위(49·사진)가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목격하고 탑승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7일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노 교위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께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죽림IC(무안군 삼향읍 남약방향)를 지나던 중 앞서가던 화물트럭과 SUV 차량이 추돌, SUV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목격했다. 이에 노 교위는 즉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전북된 SUV 차량의 창문을 뜯어 탑승자들을



구조했다. 구조 중 사고 차량에 갓길에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으나 노 교위는 구조 활동을 지속해 일가족 3명(할아버지, 할머니, 손녀)을 구출했다. 이후 노 교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일가족을 인계했다. 119구조대 관계자는 “노 교위의 빠른 조치로 인명사고 등 2차 사고가 예방됐다”고 말했다. 노 교위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빠

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빨리 구조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랬을 것”이라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노 교위는 지난 2004년 목포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임용, 현재 목포교도소 직업훈련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목포교도소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 중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관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역 환경 정화에 적극 앞장서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지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조용안 제8대 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위촉



제8대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에 조용안(사진) 관소리장단 보유자가 위촉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용안 신임 예술감독은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관소리장단 보유자다.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과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마당창극 ‘천한 맹인이 눈을 뜬다’, ‘아나옛다. 배갈라라’ 연출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국악 대중화에 앞장섰다. 도립국악단 신임 예술감독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6년 4월 8일까지 2년이다. 조용안 예술감독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장르와 공간을 넘어 가·무·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전통 국악을 대중화하고 관객자원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시원 기자



## 광주도시공사, ESG 실현 ‘노사화합 식목행사’

광주도시공사는 “제79회 식목일(4월5일)을 맞아 최근 공사가 관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우산빛어울림) 단지 내 정원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식목행사는 공사의 ESG 경영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노사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민근 사장과 노조 집행부 등 3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임직원들은 ‘노사 소통의 나무’와 함께 다양한 계절 꽃나무를 식재했으며 아파트 단지와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녹색환경 조성에 일조했다. 정민근 도시공사 사장은 “식목일을 맞아 노사가 함께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ESG 경영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 인문사회연구학회 등 ‘춘계학술대회·연구윤리교육’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학회장 김태운)와 인문사회콘텐츠학회(학회장 박종렬)는 “전남 진도솔비치 루비홀에서 K교육연구학회·인문사회학회와 ‘2024년 춘계공동학술대회 및 연구윤리교육’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들의 총 12편의 논문 발표 및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장순배 영남대 교수와 손희하 전남대 교수 등 총 4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와 인문사회콘텐츠학회는 학술대회 때마다 참석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이 기자



## 국립장성숲체원, 식목일 기념 민·관 협업 나무심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장성숲체원은 7일 “지난 5일 국립장성숲체원 산림교육센터 일대에서 식목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SG 경영의 일환으로 방문객에게 쾌적한 산림복지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식목 활동에는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직원들과 하동군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직원 및 이용인 20여명이 함께 했다. 식재한 수목은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지원받은 산딸나무 약 200주다. 산딸나무는 산딸기 모양의 열매를 맺는 새들이 좋아하는 수종이다.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은 “숲체원은 오늘 심은 나무와 함께 성장하며,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김문태 기자



## 광주아이돌봄광역센터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협약

광주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최근 센터 교육실에서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과 광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 광주를 이끌어가는 늘봄, 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정서 지지 및 정서 역량강화 활동 ▲이용 수요자 중심의 부모교육 ▲내담자 중심의 상담

서비스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 위험 신호에 따른 집중관리 및 치료 외 다양한 가족 친화적인 문화 행사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기관장들은 “늘봄, 돌봄 플랫폼 역할에 따른 지역 네트워크 실천을 위해 오는 5월 중 각 기관별 실무자 간담회를, 10월 중에는 하반기 사업 운영 보고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다각기움, 통합 돌봄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기수희 기자



서부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7일 “새 학기를 맞아 증가하는 교통안전 수요에 대비하고 교통약자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일 서구 팜애플마켓 월드킴점 주차장에서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부경찰서, 서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 10여명이 참여해 통학버스 총 6대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구비 ▲운전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하차 확인장치 작동 등을 확인했다. 문병환 서부경찰서장은 “모든 어린이의 등·하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동강대 RNTC, ‘ESG 실천’ 교내 정화활동

동강대학교는 “최근 305학생군사교육단 RNTC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천하며 새 봄 맞이 교내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RNTC는 후보생 10·11기 모집 활동도 벌였다. 지난 5일에는 인문사회관 앞 운동장에서 부사관학교 군악대를 초청해 대중가요, 군가 메들리 등 버스기 공연을 펼치는 등 RNTC를 적극 홍보했다. /김대이 기자

## 도, 산하 공사·출연기관 일·생활 균형 실천 다짐대회

전남도는 지난 5일 도청 왕인실에서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 일·생활 균형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도 공사·출연기관 일·생활 균형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확산에 함께 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자녀 돌봄시간’(1일 2시간)을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남도 공무원 복부조례’를 개정하는 등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도 산하 21개 공사·출연기관도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지사와 공사·출연기관장 등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출연기관의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 사례 소개, 기관장과 200여명이 함께하는 세대공감 토크, 전남 육아어빠 사진전, 출생수상 318프로젝트 홍보 등이 진행됐다. 이 중 세대공감 토크는 결혼, 육아, 가족, 직장



생활, 바람직한 조직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통해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부족한 부분은 일·생활 균형 실천 서약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가족 친화 직장문화 확대가 절실하다”며 “전남도청과 21개 공사·출연기관을 시작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가 도내 곳곳에 퍼져 많은 기관과 기업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북구가족센터, 다문화 청소년 진로·진학 설명회

광주북구가족센터는 “최근 청소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진로·진학설명회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이주배경청소년 성장기회 격려해소지원 참여자와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중·고등학교 교육제도와 진학과정, 다문화특별전형 대학입시제도 등 설명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 학부모는 “결혼이주민으로 한국 학교를 다녀보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 자녀의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 선택과 내신관리에 대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효경 광주북구가족센터장은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녀 교육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설명회가 가정 내 진학 지도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